

국제유가 고공행진... 호재일까

OPEC 합의 후 WTI 14.26%, 브렌트유 16.30%, 두바이유 12.86% ↑

세계경제 회복에 긍정적... 수출 개선 기대감 ↑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가 상승이 디플레이션을 누그러뜨려 세계 경제 회복세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경제에도 호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수요 진작이 아닌 공급 축소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은 오히려 국내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OPEC의 감산 합의 이후 최근 사흘간 세계 주요 시장에서 국제 유가는 두자리수의 급등세를 보였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 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달 29일 배럴당 45.23 달러에서 2일 51.68 달러로 14.26%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영국 브렌트유(46.38→53.94 달러)는 16.30%, 두바이유(44.65→50.39 달러)는 12.86%씩 상승해 배럴당 50달러 선을 넘겼다.

시장에서는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유가 상승 압력이 강해져 최적 수준(스위트스팟·sweet spot)인 배럴당 60달러 안팎까지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고 있다.

◇유가 상승, 세계 경제에는 '단비'... 한국 수출에도 긍정적

유가 상승은 회복세가 지지부진했던 세계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다.

2년여간 지속됐던 산유량 '치킨 게임'이 끝나면 산유국과 신흥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컸던 상황에서 유가가 반등하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높여 소비자나 투자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다면 장기간 수출 부진에 시달리던 국내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유국에 대한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건설, 조선, 해양플랜트 등의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석유 관련 제품의 수출 단가가 상승하면서 정유, 석유화학 업종의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회풍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그동안 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

는데 중동,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수요가 위축됐다"며 "유가 상승은 제품 단가 상승,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회복 등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실장은 "구체적인 감산 합의가 나와서 내년 1~6월 시행을 발표하면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수출과 단가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했다.

◇내수 경기에는 부정적...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하지만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의 압력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것은 국내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를 경우 내수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3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가격을 인상하자 상품 가격이 상승했고, 인플레이션은 소비 침체를 유발했다.

이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2%나 급등했고

경제성장률은 5.3%포인트가 떨어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가가 내려갈때(수요 부진)와 올라갈때(공급 축소)의 원인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경기를 견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수요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를 끌어올린다고 해도 우리 경제가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유가가 오르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위험 요인이다.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라 금리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유가 상승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금리가 급등할 경우 가계부실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지난 9일 1.402% 수준이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2일 1.745%까지 올라 34.3bp나 급등했다.

국고채 금리는 지난주 초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 개입으로 진정세를 보이다가 OPEC의 감산 결정 이후 다시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부 교수는 "트럼프 탄핵과 유가 상승의 효과가 겹치면서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요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실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

쉐보레 말리부 '올해의 안전한 차' 선정

쉐보레(Chevrolet)의 중형세단 말리부(Malibu)가 5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자동차안전도 평가에서 '2016 올해의 안전한 차'에 선정됐다. 말리부는 올해 더욱 강화된 신차안전도평가(KNCAP:Korea New Car Assessment Program)시험에서 충돌안전성 분야, 보행자안전성 분야 및 운전 안전성을 포함한 종합점수에서 준대형 경쟁 모델을 포함한 총 14종의 평가 대상 모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 차량 안전성 평가 최고 등급을 인정받았다.

말리부는 차체의 73%에 달하는 광범위한 영역에 고품질의 초고장력 및 고장력 강판을 적용하며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2열 측면 에어백을 포함 8개의 에어백을 기본 장착했으며, 전방 충돌 경고, 지속 및 고속 자동 긴급 제동, 지능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사각지대 경고, 스마트 하이빔 외에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경고, 2열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등 경쟁 차량과 차별화 된 첨단 안전 시스템을 채택했다.

말리부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실시한 2016 신차평가 프로그램(New Car Assessment Program)의 안전성 종합 평가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바 있으며,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 선정 2016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에 이름을 올리며 국내외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아 왔다.

한편, 쉐보레 스파크(Spark) 또한 최고 수준의 충돌안전성으로 말리부와 함께 종합 평가 1등급에 나란히 오르며 최고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쉐보레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했다. /문선=문선 기자



레노버, AR 탑재 스마트폰 '웹2프로' 출시

한국레노버가 구글의 증강현실(AR) 기술을 탑재한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 '웹2프로'를 국내에 출시했다.

한국레노버는 5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AR 기술 탱고를 비롯해 깊이와 심도, 명암을 인식하는 3개의 카메라가 장착된 '웹2프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웹2프로'는 3D 이미지 렌더링이 가능한 3개의 카메라와 주변의 물건이나 공간을 초당 25만번 이상 측정하는 센서를 통해 스마트폰에 비춰진 환경을 3D로 변환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모션 트래킹(Motion Tracking), 심도 인식(Depth Perception), 공간 학습(Area Learning) 등의 기술을 지원해 3D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볼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를 파악

하고 주변의 표면과 장애물을 분석해 시각화한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 구입하려는 가구의 크기를 감지하고 집의 공간과 비교해 가상으로 배치해볼 수 있으며, 가상의 애완동물도 키울 수 있다.

증강현실 게임뿐 아니라 소광물과 같이 복잡한 실내 공간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다.

6.4인치 대화면에 초고화질 QHD 해상도를 지원하는 '웹2프로'에는 퀄컴스냅드래곤 652 프로세서, 4GB 램 등이 탑재됐다. 전면에는 800만 화소, 후면에는 16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장착됐으며, 배터리 용량은 4050mAh에 달한다.

돌비 모션 트래킹(Motion Tracking), 심도 인식(Depth Perception), 공간 학습(Area Learning) 등의 기술을 지원해 3D환경에서 자신의 위치를 볼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의 현재 위치를 파악

해 단속 판매된다. /뉴스

"저금리 시대 끝... 금리 급등 유의해야"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경제·금융 환경 악화...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 급등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은행연합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가 5일 공동으로 개최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은행산업 전망과 리스크 요인 점검 세미나'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완중 하나금융연구소 팀장은 "내외발 금리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지난 2014년 이후 지속돼 온 금리하락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주택공급물량 급증과 함께 그간 활성화됐던 주택시장도 조정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글로벌 경기부진 장기화, 보호 무역주의 확산, 경제주체 심리위축 등 경제·금융환경 악화가 우

려된다"며 "한계기업과 가계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 역시 "세계경제의 부진 속에서 미국의 보호주의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나 투자 등이 저조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심화,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위험요인이 결합돼 큰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준 모건스탠리 인터넷서널 증권부장 역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및 공화당의 국회 장악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

아울러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가 국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은행들의 경우 가산금리를 올려 수익성을 보전하기 보다는, 수익 구조 다변화 등으로 통해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재문 은행연합회 전문위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취약·한계계층의 상황능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은행들은 가계대출 중심의 규모 위주의 경쟁을 지양하고, 자본수익률 제고 및 수익구조 다변화 등 질적성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

원은 "미국의 금융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급등 가능성이 국내 은행들의 핵심적 리스크"라며 "이에 따른 저소득층·다중주택자·한계기업의 상황능력 악화 등에 대응해 은행들의 자기자본 관리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은행 대출금리 상승은 주로 시장 조달금리 변동에 기인한다"며 "은행 가산금리 상승이 반드시 이익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은행 수익원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가계부채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꿔 소비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정보의 제공을 확대해 소비자 스스로 본인의 채무와 가격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무 상황이 용이하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는 과감한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 상승 리스크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